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국민학교, 중·고등,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over Family Life Cycle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金 和 子

*Dept. of Home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of
Dongduck Women's University
Hwa Ja Kim*

동덕여자대학교 자연대학 가정학과
조교수 : 尹 鐘 姬

*Dep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duck Women's University
Associated Prof. : Chong Hee Yoon*

— 목 차 —

- | | |
|--|--|
| <p>I. 서 론</p> <p>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p> <p>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p> <p>1. 부부의 결혼만족도</p> <p>2.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p> <p>3. 선행연구의 문헌고찰</p> <p>4. 연구문제 및 가설</p> <p>III. 연구방법 및 절차</p> <p>1. 연구설계</p> <p>2. 조사대상의 선정</p> <p>3. 조사도구의 선정</p> <p>4.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p> <p>IV. 조사결과 및 분석</p> <p>1. 조사대상과의 일반적 성격</p> | <p>2.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p> <p>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의 관계</p> <p>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의 관계</p> <p>5.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의 관계</p> <p>6.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 및 부부의 결혼만족도와의 관계</p> <p>V. 결론 및 제언</p> <p>참고문헌</p>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mographic-socialological variables(i.e., educational level, duration of marriage, mate selection type, monthly income, number

of children and the frequencies of family's joint-leisure-activity) and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o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The subjects were 278 husbands and wives living in Seoul area who had the eldest child attending at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university, respectively. The families were categorized to Duvall's family life cycle. Befre the main study was conducted from SEP. 27 to OCT. 8, 1990, a pre-test was conducted on 52 subjects from SEP. 20 to SEP. 23, 1990. The values of Chronbach's α were obtained on the effid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alpha=0.885$) and marital satisfaction($\alpha=0.939$). Data analysis was by Chronbach's α , ANOVA,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Path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Marital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1) to demographic-socialological variables : educational level, monthly income, the frequencies of family's joint-leisure-activity (2) the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2)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frequencies of family's joint-leisure-activity.

3)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was found to be varied in each stage of life cycle.

(1) As for the group who had elementary-school-aged children :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beta=0.717, p<.001$), joint-leisure-activity frequency($\beta=0.303, p<.001$), monthly income($\beta=0.202, p<.01$), mate selection type($\beta=0.180, p<.05$). (2) As for the group who had middle-school-aged children :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beta=0.702, p<.001$) (3) As for the group who had high school-aged children :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beta=0.488, p<.001$), joint-leisure-activity frequency($\beta=0.368, p<.001$) (4) the group who had university-aged children :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beta=0.729, p<.001$), monthly income($\beta=0.164, p<.01$).

The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55 percent of the marital satisfaction could be accounted for by demographic-socialological variables and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R^2=0.551$).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현대가정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 중 특히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만족도가 부부상호간의 정서적 구조 등 부부개인간의 문제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녀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녀들 장래의 결혼생활에까지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Evelyn, 1971; 김

명순, 1988). 이러한 파급효과를 강조한 Lewis와 Spanier(1979)는 자녀의 성장기에 부모가 보여주는 성공적인 결혼생활은 결혼생활에 대한 좋은 모델로서 성인자녀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듯이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역기능적이고 부조리한 사회현상을 막기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부부관계를 위해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Udry, 1966 ; Cross, 1980 ; Raush, 1980).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결함은 가정의 안정과 만족스런 생활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호혜적인 부부관계란 각자의 개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제공해 줌으로써 상호작용과 함께 조화된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Raush(1980)은 주장한다. 부부간의 심리적 친밀감과 상호감정적 지지를 얻기위해 부부체계는 상호적응을 통한 일련의 언어적, 비언어적행동과 함께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과정 및 특히 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공통된 의미를 서로 타협해 나가야한다(Calvin과 Brommel, 1990).

이렇게 하면서 가족은 발전하고 변화하여 한 가족원이 본래의 생물학적 가족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생활주기를 시작하고 그것에 적응해 나간다(Calvin과 Brommel, 1990). 이렇듯 가족이 존재하는 동안에 거치는 발달의 중요한 단계를 가족생활주기라 할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살펴 본다면 가족단계의 발달에 따른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의사소통 효율성의 변화와 행복과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적용시킨 연구들은 드문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관련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별하여 가설적인 인과모형을 구성한 후 부부가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그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다.

둘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부부문제를 이해함에 의사소통 효율성이 일차적인 촉진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1. 부부의 결혼만족도

부부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오는 동안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 전반의

평가기준은 행복과 안정으로 규정되고 있다(Hichs와 Platt, 1970). 부부간의 정서적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그러한 성격상 객관성을 가지고 확실히 조사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화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주창되어 왔고 많은 관심을 받아온 분야이다(Hawkins, 1968 ; Rollins와 Feldman, 1970 ; Jeries, 1971 ; Burr, 1973 ; Lewis와 Spanier, 1979 ; Roach Frazier와 Bowden, 1981 ; 서동인, 1985 ; 정승혜, 1988).

학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정의는 크게 주관적, 객관적인 두가지 차원으로 요약되는데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승혜(1988)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결혼만족도란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 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비교이며 둘째, 개인이 결혼생활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란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좋고 싫음의 선호도로써 변화가능한 태도라 정의하였다.

2.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가족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정한 관계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으로 응집과 적응을 조절하는 하나의 체계이다(Calvin과 Brommel, 1990).

의사소통 행위가 "가정"이라는 공간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족이 지니는 고유의 특성에 의해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게 되며 또한 누구와 의사소통을 나누는가에 따라 질과 형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이란 목적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간의 정보교환과정이라고 정의내린다(Gross, Crandall과 Knoll, 1984).

Bienvenu(1967)는 "커뮤니케이션"은 유생물사이의 느낌, 태도, 사실, 믿음, 사상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써 개인간에 서로 각자가 다른 상황을 이해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정의는 여러 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가지 공통적인 면은 과정이라는 개념은 모두 함축해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과정이라는 부분들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고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제학자들의 분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 유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인숙(1988)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특히 한국 가족구조의 특성과 사회, 문화적 성격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사소통 유형분류에 대한 국내연구는 주목할만하다.

이상의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 의사소통연구는 유형(pattern), 방식(style) 중심이었으나 본 연구는 부부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지의 의사소통 효율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초점을 둔다.

Halford(1990)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의사소

표 2-1.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유형별 국내외연구¹⁾

학 자	기능적의사소통	역기능적의사소통
Hawkins(1980)	친숙형(Contract Style) 의견형(Speculative Style)	억제형(Controlling style) 회피형(Conventional style)
Norton(1978)	긴장이완형(Relaxed) 개방형(Open) 표현형(Animated) 감정이입형(Attentive) 친밀형(Friendly)	지배형(Dominant) 논쟁형(Contentious)
Gibb(1961)	기대형(Supportive)	방어형(Defensive)
Bernstein(1958)	정교화된 언어양식 (Elaborated code) 개인적 방식 (Personal mode)	제한된 언어양식 (Restricted code) 지위적/명령적 방식 (Positions/ Imperative mode)
Stair(1983)	설득형(Leveling)	회유형(Placating) 비난형(Blaming) 타산형(Computing) 산만형(Distracting)
Schumm(1982)	기대형(Supportive)	혐오형(Aversive)
송성자		권위지향형 불성실지향형 희생지향형
이창숙(1987)	친숙형 성실형	권위지향형 타인지향형 희생형

¹⁾Hawkins, Weisner, Ray(1980) Spouses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85-593.

김인숙(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체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수경(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통문제와 문제해결은 서구여러나라에서 결혼치료 요법을 찾는 부부집단의 가장 공통된 불만족 요소로써 결혼치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개선해 가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관계에 대한 특별한 의사소통 행동은 각 나라마다 문화적 다양성을 지님으로써 명확히 효율적인 의사소통 관계는 그 차이점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부부들간의 정서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촉진요소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소통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이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3. 선행연구의 문헌고찰

1) 결혼만족도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1) 교육수준

Blood와 Wolfe(1960)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커뮤니케이션기술을 개발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져옴으로써 결혼생활의 정보 및 의견을 나누고 애정을 표현함에 보다 용이함을 나타냄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홍신례(1987)와 정재용(1985)이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2) 결혼지속년수

Miller(1976)은 결혼지속년수와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연구와 결혼 초기에는 높았다가 그 후에 점차 감소하고 후기에 다시 높아지는 곡선적 관계를 지닌다는 연구 두가지로 분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Rolling와 Canon, Kimmel(1974)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관계 연구에서 결혼지속년수가 경과할수록 전반적인 만족도는 감소하나 결혼생활 말기에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3) 결혼형태

Calvin과 Brommel(1990)은 결혼전의 기간동안 두사람은 서로 함께하고 배우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찾는 기회를 갖는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선택유형에 따라

결혼후의 결혼만족도가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월평균수입

많은 연구가들은 소득이 낮고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의사소통의 부족으로부터 재정적인 문제 등의 변동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서적 만족감을 느낀다고 제시하였으며 실제로도 이혼이나 별거 등을 통한 결혼의 붕괴의 실상은 소득 및 남편의 직위가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Komarovsky, 1962 ; Bernard, 1966 ; Udry, 1967 ; Cutright, 1971).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수입과 결혼만족도의 관련은 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Glenn와 Weaver, 1977).

(5) 자녀의 수

Spanier와 Lewis(1980)는, 자녀의 수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Glenn와 Weaver(1978)는 자녀의 연령이 6세이하인 경우에 부적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으며 박민숙(1985)도 자녀는 부모의 시간, 에너지, 경제적자원에 위험을 가함으로써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홍신례(1987)는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볼 수 있다.

(6) 공동여가활동 빈도

Orthner(1975)는 부부가 함께 즐기는 여가빈도는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상관을 맺을 것이며 반대로 부부가 제각기 즐기는 여가빈도는 부적상관 혹은 아무런 관계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한 결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아내보다는 남편의 경우에 차이를 나타냈지만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 외에도 여가활동을 배우자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이 증가되고 보다 낮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들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다(Holman과 Epperson, 1984 ; Leigh, Ladehoff, Howie와 Christians, 1985). 가족학자들은 Orthner가 설명한 부부가 함께 즐기는 "공동 여가활동"(Joint leisure activities)과 유사한 표현으로 "동료애"(Co-

mpanionshi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의사소통 효율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

(1) 교육수준

이정순(1982)은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일치도와 이해정도를 살펴 본 결과 고졸집단에서만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서수경(1988)은 대졸이상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이 친숙형과 사회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졸이하의 성실형의 태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홍신례(1987)의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효율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2) 결혼지속년수

홍신례(1987)의 연구는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효율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서수경(1988)은 결혼기간이 5년미만집단은 친숙형, 5~10년집단은 권위형, 10~15년집단은 성실형, 15~20년집단은 분석형, 20년이상 집단은 성실형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3) 결혼형태

박민숙(1985)은 결혼전의 배우자 선택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Calvin과 Brommel(1990)은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전의 교제기간이 효과적 의사소통법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4) 월평균수입

이정순(1982)는 월평균 생활비가 높을수록 이들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부적상관을 발견하였고 홍신례(1987)의 연구는 수입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효율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반면 박민숙(1985)의 연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녀수

결혼만족도와 자녀의 수와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효율성은 박민숙(1985), 홍신례(1987)의 연구에서도 보고하였듯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의사소통 효율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공동여가활동 빈도

공동여가활동 빈도와 부부간의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살펴 볼 수 없었으나 이와 유사한 연구로써 Holman(1988)은 Orthner(1975)와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여가활동과 결혼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배우자와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경우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낮은집단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부적상관, 혹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커뮤니케이션이 높은 집단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여가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가활동의 참여 여부보다는 부부가 여가를 즐기는 동안에 서로 주고 받는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주부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적극적이며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Kessell, 1966 ; Duvall, 1977).

3)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과의 관계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안정성과 질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사이에 자신에 대한 의사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결혼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관계가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행복감, 만족등 결혼생활의 질이 높으며, 의사소통의 부족은 가족생활의 붕괴와 같은 갈등적 관계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 효율성의 차원에서 부부 각자가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는 빈도에 따른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볼 때 감정노출의 양에 의해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배우자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양 혹은 지나치게 적은 양의 감정노출을 받는다고 인식할 때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Davidson, 1984). 이와 마찬가지로 Wackman(1978)은 결혼생활의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과 결혼만족도나 행복도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그 밖에

건강한 가족연구에서도 의사소통과 가족원의 만족도간에는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이와같은 견해들을 지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정용재(1985)는 동거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홍신례(1987)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효율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은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김인숙(1988)은 결혼만족도는 언어적 표현정도가 매우 개방적인 집단에서 그리고 쌍방간의 감정노출이 유사한 양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을 종합해 보면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월평균수입, 자녀수, 공동여가활동 빈도로 요약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의사소통 효율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4. 연구문제 및 가설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월평균 수입, 자녀수, 여가활동 빈도를 포함한다.

(가설 1)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부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월평균 수입, 자녀수, 공동여가활동 빈도를 포함한다.

(가설 2)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의사소통 효율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간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위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도식화해 보면 그림 2-1과 같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앞에서 고찰한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효율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표본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인정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재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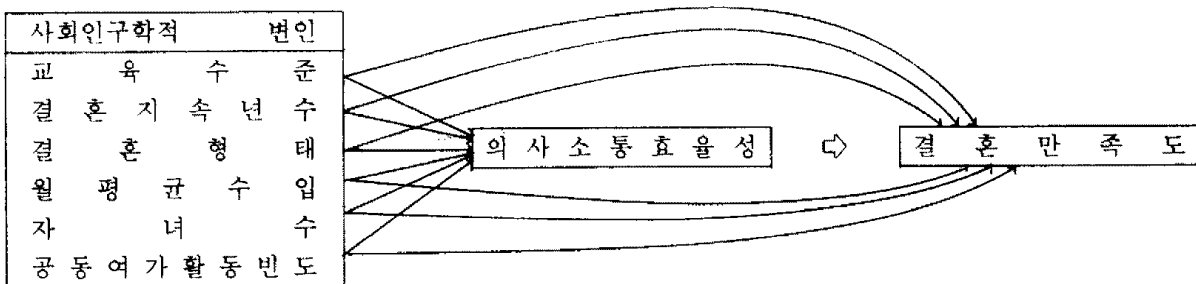


그림 2-1. 연구모형.

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목적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학자녀를 1명 이상 둔 부부 중 남편 혹은 부인 1명이 응답토록 하였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명의 일방적인 견해에 치우칠 때 야기되는 자료의 편파성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이다. 표본조사를 위한 대상선정의 방법은 본 연구자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의 한계때문에 비확률적 임의추출이었으나 다음에 묘사한 장치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였다. 대상선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각급학교 분포도를 기초로 17개구 가운데 초, 중, 고, 대학교기관이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서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3개구를 선정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계층의 치우침을 막기 위하여 서대문구, 성북구, 관악구의 통계연보에 나타난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을 기초로 상, 중, 하집단을 선정하여 각 구내에 소속되어있는 초, 중, 고, 대학교 4개 집단의 각 1개 학교내에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질문지를 전달배포해서 1회 회수하였다.

이와같은 대상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총 360부의 질문지를 배포 278부를 회수하여(회수율 77%)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의 선정

1) 부부의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Roach(1975)의 결혼만족도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 총 73문항을 Bowden(1977)이 48문항으로 재구성한 결혼만족도 척도를 다시 우리 문화권에서 적용할 때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여 높은 신뢰도($\alpha=0.951$)를 얻었던 이인수(1985)의 총 48문항으로 구성된 MSS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정말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분포는 48점부터 240점까지이다.

2) 의사소통효율성측정도구

이 검사도구는 Bienvenu(1970)가 개발한것으로써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이나 양상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총 19항목의 부부간 의사전달목록(MCI: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자는 우리문화권에서의 적합성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이를 번안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대한 판별능력이 높은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Cronbach's $\alpha=0.885$). 의사소통 효율성의 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5개의 긍정적 문항과 14개의 부정적문항으로 되어있다.

4.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1차예비조사는 1990년 9월 20일~9월 23일 기간동안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는데 부부의 결혼만족도 척도는 $\alpha=0.939$,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척도는 $\alpha=0.885$ 로써 매우 안정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신뢰도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됨으로써 이 측정도구를 가지고 1990년 9월 27일~10월 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ANOVA,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 Pearson적률 상관계수를 SA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분석

지금까지 전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및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기술하고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며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며 넷째,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반요인들간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4-1과 같다.

2)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

가족생활주기를 첫자녀 중심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령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점수분포 경향은 표 4-2와 같다.

결혼만족도의 득점가능범위는 48~240점 범위로 중간수준이 144점이라 할 때 전체적으로 비교적 결혼만족도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사소통 효율성의 경우 득점가능범위는 19~76점 범위로 중간수준이 48점이라 할 때 역시 비교적 의사소통 만족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남편이 응답한 경우, 부인이 응답한 경우를 구분하여 그들이 지각한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첫자녀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집단의 경우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이 부인의 경우보다 남편의 경우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남편이 더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교 연령집단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에 비해 보다 높은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세운 가설에 대한 검증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예 : 부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연수, 결혼형태, 월평균수입, 자녀수, 공동여가활동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이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각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성격 (N=278)

분포		N	%
성 별	여	216	77.7
	남	62	22.3
	계	278	100
첫 자 녀 연 령	국민학교연령	67	24.6
	중학교연령	54	19.9
	고등학교연령	60	22.1
	대학교연령	91	33.5
	계	272	100
교육수준	무학	2	0.7
	국민학교졸업	18	6.5
	중학교졸업	42	15.2
	고등학교졸업	146	52.9
	대학교졸업	61	22.1
	대학원졸업 이상	7	2.5
계	276	100	
결 혼 지 속 년 수	6~10년	30	10.9
	11~15년	78	28.3
	16~20년	69	25.0
	21~25년	62	22.5
	26~30년	25	9.1
	31~35년	6	2.2
	36년이상	6	2.2
계	276	100	
결 혼 형 태	중 매	87	31.3
	연 애	107	38.5
	중매반, 연애반	84	30.3
계	278	100	
월 평 균 수 입	30만원 미만	3	1.1
	30~ 59만원	44	15.8
	60~ 89만원	90	32.4
	90~ 119만원	45	16.2
	120~149만원	52	18.7
	150~179만원	23	8.3
	180만원 이상	21	7.6
계	278	100	
자 녀 수	1 명	25	9.0
	2 명	134	48.2
	3 명	78	28.4
	4명이상	40	14.4
	계	278	100
공 동 여 가 활 동 빈 도	드문 편이다	97	35.1
	보통이다	141	51.1
	자주 갖는 편이다	38	13.8
	계	276	100

표 4-2.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효율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

가족생활주기		변수	여 자			남 자			계		
			N	M	SD	N	M	SD	N	M	SD
국민학교 연령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효율성		54	169.51	28.55	12	186.16	23.84	66	172.5	28.3
				52.20	8.20		54.51	6.83		52.6	7.9
중학교 연령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효율성		39	167.19	24.63	15	188.65	23.65	54	173.1	26.0
				52.37	8.04		56.23	7.51		53.4	8.0
고등학교 연령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효율성		47	164.63	27.71	13	181.68	28.89	60	168.3	28.6
				53.81	8.91		54.71	6.43		54.0	8.3
대학교 연령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효율성		70	172.33	26.89	21	161.74	25.86	91	169.9	26.8
				54.34	8.00		51.24	6.18		53.6	7.6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교육수준 $F=4.61, p<.01$, 월평균수입 $F=2.39, p<.05$, 공동여가활동 빈도 $F=18.39, p<.001$ 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자녀수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이들 변수에 대한 가설은 부정되었다. 따라서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공동여가활동 빈도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차이검증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의 관계

(가설 2)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예: 부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월평균수입, 자녀수, 공동여가활동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 1과 동일한 통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4-4에서 살펴 보듯이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동여가활동 빈도 $F=15.08, p<.001$ 으로써 나머지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월평균수입,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들 변수에 대한 가설은 부정되었다.

5)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의 관계

(가설 3)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의사소통 효율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5에서 보는 바와같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높은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형성한다는 가설이 긍정되었다($F=283.58, p<.001$).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 형성을 설명하는 변량은 51%로써 본 연구모형이 설정한 변수들중 의사소통 효율성변수가 전체설명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6)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 및 부부의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간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표 4-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 차이검증

사회인구학적변인		부부의 결혼만족도				
		N	M	SD	F	Grouping
교육수준	무학 및 국민학교 졸업	20	164.7	33.4	4.61**	A
	중학교 졸업	42	157.5	25.8		A
	고등학교 졸업	145	174.5	27.1		A B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이상	68	172.6	26.5		B
결혼지속년수	6~10년	30	175.1	27.2	1.26	A
	11~15년	77	172.9	28.5		A
	16~20년	69	170.2	28.2		A
	21~25년	62	173.3	27.4		A
	26~30년	25	168.6	23.7		A
	31~35년	6	152.0	20.7		A
	36년이상	6	151.8	16.6		A
결혼형태	중 매	87	164.9	30.8	2.89	A
	연 애	107	174.4	27.0		A
	중매반, 연애반	83	172.1	24.9		A
월평균수입	59만원 미만	47	160.1	30.2	2.39*	A
	60~ 89만원	89	171.4	24.7		A B
	90~119만원	45	172.7	33.0		A B
	120~149만원	52	171.2	26.7		A B
	150~179만원	23	173.5	26.9		A B
	180만원 이상	21	183.4	21.3		B
자녀수	1 명	25	166.0	23.5	1.44	A
	2 명	134	174.2	28.3		A
	3 명	78	168.6	27.3		A
	4명이상	40	166.2	29.5		A
공동여가활동빈도	드문 편이다	97	158.5	30.0	18.39***	A
	보통이다	140	176.5	24.9		A
	자주 갖는 편이다	38	182.2	20.2		B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집단으로써 같은 문자로 표시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경로계수를 추정하는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의 특수유형으로 변수간의 연관정도를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로분석에는 첫째,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시간적 선행이 존재하며 상관관계가 제기되더라도 실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우선 경로분석을 하기 이전에 다단계회귀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변수를 채택한 후 표 4-6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들 변수들만을 고려한 상태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사소통 효율성으로써 총 변량 가운데 51%의 설명력을 지니며 월평균수입, 공동여가활동 빈도, 결혼지속년수가 미약하나마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고찰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1) 첫자녀가 국민학교연령인 집단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변인으로써 의사소통 효율성($\beta=0.717, p<.001$)과

표 4-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 차이검증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		N	M	SD	F	Grouping
사회인구학적변인						
교육수준	무학 및 국민학교 졸업	20	53.1	8.0	2.57	A
	중학교 졸업	42	50.0	8.1		A
	고등학교 졸업	145	54.4	7.9		A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이상	68	53.3	8.3		A
결혼지속년수	6~10년	30	54.1	7.1	1.57	A
	11~15년	77	52.6	9.0		A
	16~20년	69	54.8	7.9		A
	21~25년	62	54.2	7.8		A
	26~30년	25	51.6	6.9		A
	31~35년	6	46.7	3.5		A
	36년이상	6	54.2	7.0		A
결혼형태	중 매	87	52.3	9.4	1.09	A
	연 애	107	53.7	7.7		A
	중매반, 연애반	83	54.0	6.8		A
월평균수입	59만원 미만	47	51.5	7.3	0.94	A
	60~ 89만원	89	54.6	7.8		A
	90~119만원	45	53.0	8.2		A
	120~149만원	52	53.2	9.0		A
	150~179만원	23	53.6	10.3		A
	180만원 이상	21	53.5	4.0		A
자녀수	1 명	25	53.4	8.4	0.65	A
	2 명	134	54.0	7.7		A
	3 명	78	53.0	8.7		A
	4명이상	40	52.1	8.1		A
공동여가활동빈도	드문 편이다	97	50.0	8.4	15.08***	A
	보통이다	140	54.9	7.2		A
	자주 갖는 편이다	38	56.2	7.4		A

***p<.001

표 4-5.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

부부의 결혼만족도	DF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F	R ²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					
기울기	1	40.372	7.859	26.39	0.513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	1	2.447	0.145	283.58***	

***p<.001

$$y = 40.372 + 2.447 x_1 + e$$

월평균수입 ($\beta=0.202, p<.01$)이 간접적인 효과로 결혼형태($\beta=0.180, p<.05$)와 공동여가활동($\beta=0.303, p<.001$)이 검증되었음을 표 4-7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결혼

형태가 연애를 통해 맺어질수록,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공동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흥미로운것은 결혼형태나 공동여가활동 빈도가

표 4-6.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단계별 종다화 귀분석

부부의 결혼만족도 독립변수	R ²	R ² Change	F
의사소통 효율성	0.513	0.513	283.578***
월평균수입	0.022	0.536	12.865***
공동여가활동빈도	0.009	0.544	5.086*
결혼지속년수	0.007	0.551	3.849*

*p<.05 ***p<.001

결혼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2) 첫자녀가 중학교연령인 집단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beta=0.702, p<.001$) 뿐이었으며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첫자녀가 고등학교연령인 집단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변인으로는 공동여가활동 빈도($\beta=0.307, p<.01$) 의사소통 효율성($\beta=0.488, p<.001$)이며 간접적인 효과는 공동여가활동 빈도로($\beta=0.061, p<.01$)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 수록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공동여가활동을 가지는 횟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4) 첫자녀가 대학교연령인 집단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변인으로는

의사소통 효율성($\beta=0.729, p<.001$)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써 월평균수입($\beta=0.164, p<.01$)이 나타났다.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말해서 월평균수입이 많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첫자녀가 대학교연령인 집단에 속하는 부부들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예 : 부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월평균수입, 자녀수, 공동여가활동 빈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다시말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lood와 Wolfe(1960)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나누고 애정을 표현하는데 보다 용이함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월평균수입에 있어서도 소득정도가 높을 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 이외의 공동여가활동 빈도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표 4-7. 각 연령집단에서 나타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가족생활주기	변 수	인 과 적 효 과			
		총체적 관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국민학교 연령	결혼 형태	0.109	-	0.180*	0.180*
	월평균 수입	0.173	0.202**	-	0.202**
	공동여가활동빈도	0.328	-	0.303***	0.303***
	의사소통 효율성	0.714	0.717***	-	0.717***
중학교 연령	의사소통 효율성	0.714	0.702***	-	0.702***
고등학교 연령	공동여가활동빈도	0.328	0.307**	0.061**	0.368**
	의사소통 효율성	0.714	0.488***	-	0.488***
대학교 연령	월평균 수입	0.173	0.164**	-	0.164**
	의사소통 효율성	0.714	0.729***	-	0.729***

총체적 관계는 단순 상관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이다.

는 Komarovskv(1962), Udry(1967), Cutright(197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예: 부부의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월평균수입, 자녀수, 공동여가활동 빈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공동여가활동 빈도가 높아 부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결혼형태, 월평균수입, 자녀수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셋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증대한다는 점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특히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총 변량의 51%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ewis와 Spanier(1979), Davidson(1984) 등과 결혼생활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와같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와는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는 연구와 일치한다.

가족생활주기(첫자녀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 연령집단)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은 인과관계를 통해 검증한 결과, 첫자녀가 국민학교연령집단인 경우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결혼형태, 월평균수입, 공동여가활동빈도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이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것은 개별화단계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있어 다른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결혼형태가 미약하게나마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Calvin과 Brommel(1990)의 연구를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첫 자녀가 중학교연령집단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자녀가 고등학교연령인 집단의 경우 결혼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의사소통 효율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동여가활동 빈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첫자녀가 대학교연령 집단의 경우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이고 그 이외의 월평균수입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학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나눈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 효율성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공동여가활동 빈도, 월평균수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자신의 견해를 온정적, 긍정적인 표현과 함께 솔직히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보다 높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또한 자녀가 어릴때는 공동으로 여가활동을 즐기는 횟수가 많을수록, 또 자녀가 아주 어리거나(국민학교), 아주 컸을때(대학교)는 소득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증대됨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응답지를 취학자녀를 통하여 회수하였는데 앞으로는 개개학부모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등을 통한 보다 객관성있는 표집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Roach(1975)의 MSS, Bienvenu(1970)의 MCI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신뢰도가 입증되었으나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우리 문화에 적절한 표준화 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양상을 규명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앞으로 부부관계의 원활한 적응을 돕는 변인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김인숙(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 제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정옥(1987).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도와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박경자(1981). 부부간의 의사소통성과 가정생활 행복도와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민숙(1984).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서동인(1985).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서수경(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서울시통계연보(198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8) 유영주(1979).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가정대학 논문집. 서울대학교, pp.65-88.
- 9) 이정순(198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창숙(1987). 한국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형실(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혜경(1986).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효재(1988). *가족과 사회*. 경문사.
- 14) 정용재(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 상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Adams, B.N.(1980). *The family*, 3rd(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16) Anderson, S.A. & Russell, C.S.(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ies: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27-139.
- 17) Belsky, J. & Spanier, G.B.(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3), 567-577.
- 18) Bienvenu, M.A.(1970). Sr.,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4.
- 19) Donohue, K.C. & Ryder, R.G.(1982). A methodological note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 743-747.
- 20) Floyd, F.J.(1988). Couples' cognitive/affective reactions to communication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2), 523-532.
- 21) Galligan, R.J. & Bahn, S.J.(1978). Economic well-being and marital stability: Implications for income maintenance progra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 22) Glenn, N.D. & Weaver, C.N.(1978). A multivariate, multisurvey study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269-281.
- 23)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N.(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Ed.), Prentice Hall Inc.
- 24) Halford, W.K.(1990). The cross-cultural consistency of marital communication associated with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487-500.
- 25) Hawking, J.L.(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50.
- 26) Hawking, Weisberg & Ray(1980) Spouses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85-593.
- 27) Holman, T.B.(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69-77.
- 28) Lee, G.R.(1988). Marital satisfaction in later life: The effects of nonmarital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775-783.
- 29) Lewis, R.A. & Spanier, G.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268-294. in W.R. Burr, R. Hill, F.I. Nye & I.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 (1), Research-based theories. N.Y. : The Free Press.
- 30) Martin, P., Hagestad, G.O. & Diedrick, P.(1988). Family stories : Events(temporarily) remember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2), 533-541.
- 31) McGodrick, M.(1980). The joining of families through marriage : The new couple in E. Carter & M. McGodrick(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32) Navran, L.(1967).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ily Process*, 6, 173-184.
- 33) Norton, R.(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141-151.
- 34) Rhyne, D.(1981). Base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941-955.
- 35) Schram, W.(1979).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 A critique and propo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12.
- 36) Spanier, G.B. & Sauer, W.(1979).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2), 27-39.
- 37) Swensen, C.H. & Eskew, R.W.(1981). Stage of family life cycle, ego development, and the marriag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841-850.